

지역 소식통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분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석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에 따른 숙박시설 활성화와 △인산물 체험단지 시설 활성화 방안 △쌍화차 거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연계 관광 활성화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단품 미인 브랜드 리뉴얼 추진 및 특산물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도형 의원은 △TV 수신료 감면 대상 홍보 결과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현실에 맞는 읍면동 경계 조정 △열선 시공, 보행권 확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방안 △정읍시 도시 정체성, 미래비전, 재정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이어,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철학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후 일정은 12월 12일 제5차 분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4억9000만원 지급

고창군이 논활용(논이모작)을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을 위해 고창 관내 481농가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또는 목초류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심덕섭 군수는 "논이모작 직불금을 통해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소득안정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만전

부안군, 답례품 개발·공급업체 공모·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력

부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법인·불가)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기부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된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지역화폐 등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전국 5949개 농협은행(축협 포함)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답례품

을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늘어 농어가 소득향상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단 출범과 함께 답례품 개발 토론회 개최, 답례품 사전조사, 신규발굴, 출품인·직원 대상 답례품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1월 22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식품 등 7개 분야 총 21개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총 21개 답례품에 대한 공급업체도 오는 9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이날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등록 등 일정한 절차

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부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배포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활용해 송출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다.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력부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수소연료전지 전동카트 시연행사 개최

부안군은 6일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부안군수(권익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바리조직원회(사무총장 최창행), 전북테크노파크(에너지산업육성담당 김영권), (주)테라리스(대표 김태영), (주)와이이노베이트(대표 이승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kW급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전동카트 시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부안군에서 신성장패키지 기업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 관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전문기업(주)테라리스와 전북도 선도기업인(주)와이이노베이트가 협력하여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동카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비도심지역, 공민지역 등에 적합한 소형 전동카트를 시제작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세계스카우트잰바리대회와 부안군 관내 체육, 공민시설 관리용으로 활용 가능성과 보급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연료전지 전동카트는 부안군 소재(주)테라리스의 연료전지 기술과 전북도내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이 융합된 사업"이라며 "부안군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집적화의 결실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민의 노래' 작사가 김동필, 정읍 역사 인물 선정

'정읍시민의 노래' 노랫말을 쓴 김동필(1939-2006)이 이달의 정읍 역사 인물로 선정됐다.

시인 겸 수필가인 김동필은 1939년 전북 부안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안 농립고와 동국대 정치학과 졸업 후 정읍 호남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후진을 양성했다.

김동필은 장년퇴직 후 백제예술대학 등에 출강하며, 시인이자 수필가로 주목받은 명작들을 손꼽았다.

특히, '정읍시민의 노래' 노랫말을 쓰기도 한 김동필은 1981년 월간 문화에 수필 '죽의 가 당선된 후, 1992년 월간 한국시에 '정읍사' 등 3편이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한국수필

문학진흥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내장문화회 창립회장, 전북문협 이사,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장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해온 중견 작가다.

또 그는 정읍문화원의 의뢰를 받아 '정읍의 전설'을 1991년 탈고한 후 2001년 증보판을 발행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작품집을 출간했다.

부평 중임에도 김동필은 각종 백일장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주에서 열린 주부백일장에 정읍여성회 관 문화관 제자들과 동행하기도 했다.

2006년 오랜 투병 끝에 여러 권의 수필집과 시집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행안부 방문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 일정으로 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이성수 기획예산실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을 만나 지역현안 4건에 3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금번 신청한 현안사업으로는 △삼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10억원) △고창군 노인요양원 차매점담실 신축(7억원) △고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커룸 신축(8억원) 스포츠클럽 활용 나비콘충원 조성사업(8억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TV수신료면제 일제 정비

전수조사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155개소 발굴·일괄 면제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에 대해 TV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적극행정

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거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TV 수신료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나 신청 방법을 모르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정읍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면제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총 155개소의 미혜택 시설을 발굴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를 발송하며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정읍시에 거주하는 1만여 명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TV 수신료면제와 요금 감면 신청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선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5일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가져

정읍시, 유공자 표창·성과 공유 등 결속 다져

정읍시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선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5일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2022년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제4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금 5개, 은 3개, 동 3개를 획득했다. 특히 50미터 권총 사격 종목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세 계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드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장인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과 시·도의원이 참석했으며, 윤준병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쓴 13명의 유공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한 해 동안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가 거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학수 장애인체육회장은 "코로나19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읍시에 영예를 안겨준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기쁨의 순간을 되새기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